



국내 · 외 워라벨 트렌드와 시사점

김혜란 연구원

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은 국내에선 여성 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저출산 · 고령화 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. 한국의 워라벨 점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며, 대체로 장시간 근무하는 비율이 낮은 나라의 워라벨 점수가 높음. 워라벨 지수가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근무시간 단축, 유연근무제 도입 등 워라벨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한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직장 선택 시 돈보다는 워라벨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워라벨을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근무 문화 개선 등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■ 일과 생활의 균형(Work and Life Balance)을 뜻하는 워라벨은 국내에서 여성 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사회 각계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

-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 고용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워라벨을 사용하였으며,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성(gender) 평등으로 그 초점이 변화하였음¹⁾
- 국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일 · 가정 양립 차원에서 시작하여 저출산 · 고령화 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
 - 워라벨은 일과 건강 · 여가 · 인간관계 등을 아우르는 개인생활과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서 일하는 방식과 형태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²⁾임
 - 직장인들 사이에서 칼퇴(칼퇴근), 퇴준(퇴근준비)이라는 말이 쓰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워라벨을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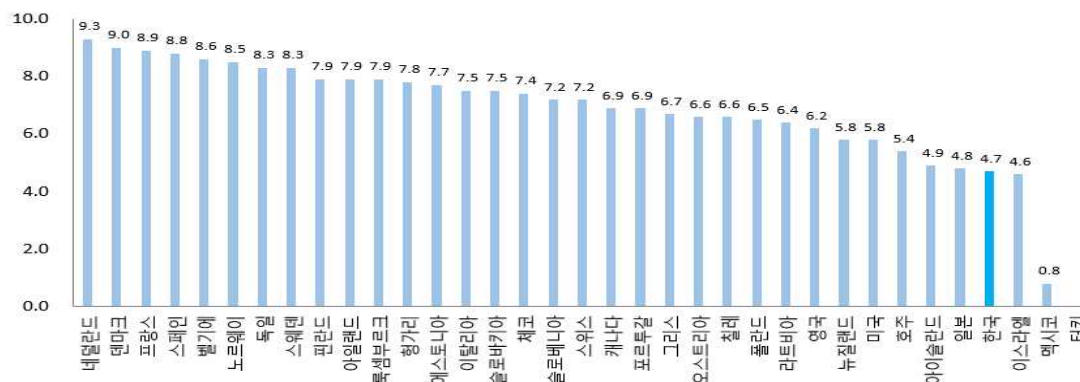
■ 한국의 워라벨 지수는 10점 만점에 4.7로 OECD 35개의 회원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, 대체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워라벨 점수가 높음

1) 고용노동부(2017. 8), “일 ·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선도국가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운영성과에 대한 연구”

2) 한국여성정책연구원(2013), “맞벌이 여성의 일 · 가정 양립 갈등과 건강영향 연구: 근로시간을 중심으로”

- 워라벨 지수는 OECD에서 ‘더 나은 삶 지수(Better life Index)³⁾’를 산출하는 항목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과 하루 중 자기 관리와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라는 두 지표로 측정
- OECD 회원국 중 워라벨 점수가 높은 나라의 1,2,3위는 각각 네덜란드(9.3), 덴마크(9.0), 프랑스(8.9)로 나타남
 -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(0.15%), 스웨덴(1.11%), 라트비아(2.09%), 덴마크(2.2%) 순이며, 한국은 20.84%로 OECD 평균 12.62%를 크게 상회함
 - 하루 중 자기 관리와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(16.36시간), 스페인(15.93시간), 네덜란드(15.90시간), 덴마크(15.87시간)이며, 한국은 14.70시간으로 OECD 평균 14.90시간과 비슷함

〈그림 1〉 OECD 국가의 워라벨 지수(2017)



자료: <http://www.oecdbetterlifeindex.org>

■ 워라벨 지수가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근무시간 단축, 유연근무제 도입 등 워라벨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EU는 1993년 연장 근무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, 특히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995년,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음
- 올해 2월 독일의 금속 노조는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현재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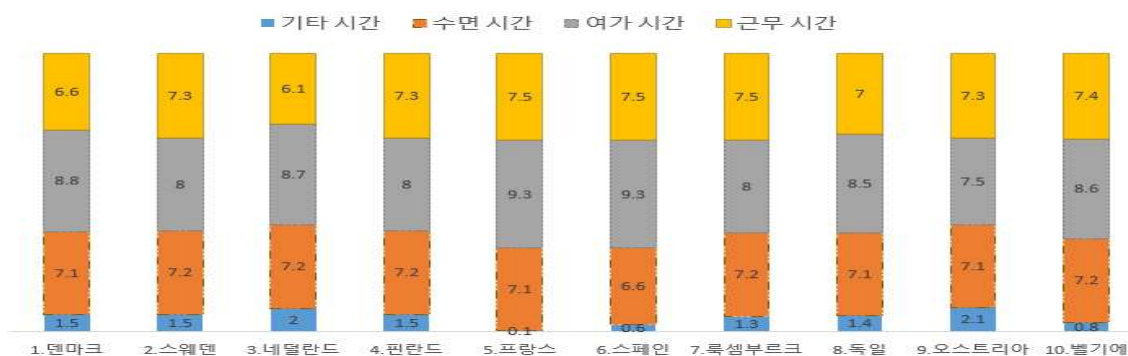
3) Better Life Index 지수는 주거·소득·고용·공동체·교육·환경·시민참여·일과 생활의 균형·건강·삶의 만족도·안전 11개 생활영역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함. 각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직접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음. 기존 정부의 데이터에 이들의 가치가 지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표들과 다름(노컷뉴스(2014. 1. 24), “OECD 한국, 일과 삶의 균형 최하위 수준”)

- 독일 최대 노조인 IG Metall은 주당 근로시간 감소에 찬성하면서 6.8%의 임금 인상을 거절한 것으로 하고 알려져 협상에서 임금보다는 워라밸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⁴⁾
- 덴마크 코펜하겐시 보건·복지부(Municipality's Health and Care Services)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유연근무제(flex time)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2018년 9월부터 약 1만 명의 직원에게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임⁵⁾

■ 한국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워라밸을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근무 문화 등 질적인 개선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

-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직장 선택 시 연봉보다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⁶⁾
-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워라밸은 근무시간과 연관은 있으나 절대적인 가치척도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임
 - 네덜란드(3위)의 경우 덴마크(1위)와 여가시간은 비슷하나 근무 시간이 6.1시간으로 덴마크 6.6시간보다 적고, 스웨덴(1위)은 근무시간(7.3시간)과 여가 시간(8시간)은 독일(8위)의 근무 시간(7시간)과 여가시간(8.5)보다 각각 높고 낮음
 -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의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휴게(hygge)를 꼽고 있으며, 스웨덴은 커피를 마시다라는 의미인 파카(FIKA)가 존재하여 회사에서 동료와의 휴식 문화가 존재함
- 이에 근로 문화 개선 및 개인 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**kiri**

〈그림 2〉 유럽 국가의 워라밸 순위에 따른 24시간 활용도



자료: <http://www.totallymoney.com/work-life-balance>

4) The Telegraph(2018. 2. 7), “German workers win to 28-hour working week”

5) CPH POST(2018. 5. 14.), “Flexible working hours increase employee satisfaction in Copenhagen”

6) 닐슨코리아 왓츠넥스트 그룹(2017. 12. 11), “유연근무제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”